

2022년 이패스 AFPK 부교재 5종 정오사항

[업데이트 일자 : 2023년 7월 10일]

요약집 모듈1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76p	<p>② 주택 보유수 : 부부기준 아래 요건 중 1가지에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인 경우 (상기 두 가지 이외의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해당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가입은 불가) <p>③ 대상주택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동기사항전부중행사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 	<p>[오탈자 수정]</p> <p>② 주택 보유수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미만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p> <p>③ 대상주택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p>										
103p	재무설계 윤리수행기준 3단계까지만 기재됨.	103p 뒤에 [재무설계 윤리수행기준 4~6단계] 추가 (내강의실-학습자료 확인)										
127p	<p>(4) 실업크레딧</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자가 실질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1년을 한도로 하여 가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실무적으로는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부담 75%, 가입자 부담 25% 	<p>[오탈자 수정]</p> <p>기간은</p>										
141p	미국이나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계약형 퇴직연금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일반적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에는 단일 법인이 참여하는 단일형 퇴직연금기금과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연합형 퇴직연금기금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2022.4 시행)는 30인 미만 사업장만 적용하는 연합형 퇴직연금의 성격을 갖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계약형 퇴직연금에 비해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이 용이하고, 연합형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기금을 집합운용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p>[오탈자 수정]</p> <p>30인 이하 사업장만 적용하는</p>										
142p	<p>다. 퇴직급여 등의 지급 및 수급권 보호</p> <p>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p>	<p>[오탈자 수정]</p> <p>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p>										
147p	<p>● 퇴직연금제도 도입과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1953.5.10</th> <th>2005.12.1</th> <th>2012.7.26</th> <th>2017.7.26</th> <th>2022.4.14</th> </tr> </thead> <tbody> <tr> <td>퇴직금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제정)</td> <td>퇴직연금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td> <td>퇴직연금제도 의무도입 2012.7.26일 이후 신규설립 사업장</td> <td>IRP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 지역연금 가입자 등</td> <td>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td> </tr> </tbody> </table>	1953.5.10	2005.12.1	2012.7.26	2017.7.26	2022.4.14	퇴직금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제정)	퇴직연금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퇴직연금제도 의무도입 2012.7.26일 이후 신규설립 사업장	IRP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 지역연금 가입자 등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	<p>[오탈자 수정]</p> <p>30인 이하</p>
1953.5.10	2005.12.1	2012.7.26	2017.7.26	2022.4.14								
퇴직금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제정)	퇴직연금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퇴직연금제도 의무도입 2012.7.26일 이후 신규설립 사업장	IRP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 지역연금 가입자 등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								
148p	<p>계약형 퇴직연금제도만 도입이 가능하지만,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될 것임</p>	<p>[문구 삭제]</p> <p>③번 전체 삭제</p>										

148p	<p>라. 담보제공 및 인출</p> <p>① 5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담보제공 및 인출이 제한 ② 담보제공은 가입자 적립금의 50% 한도로 가능 ③ 중도인출(DB형 제외) : 요건 충족 시 가입자 적립금의 100% 한도</p>	<p>[문구 수정]</p> <p>① 원칙적으로 담보제공 및 인출이 제한</p>																												
148p	<p>나. 부담금 납부</p> <p>①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은 사용자부담금을 사외 금융회사에 2019년에는 90%이상, 2021년에도 90%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p>	<p>[오탈자 수정]</p> <p>2022년에도 100% 사외에</p>																												
152p	<p>2 해외의 개인연금</p> <p>가. 미국의 개인은퇴계좌(IRA)</p> <p>① 전통형 IRA : EET방식 ② Roth IRA : TTE방식</p>	<p>[오탈자 수정]</p> <p>② Roth IRA : TEE방식</p>																												
154p	<p>나. 종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연금저축신탁</th> <th>연금저축펀드</th> <th>연금저축보험</th> </tr> </thead> <tbody> <tr> <td>운용주체</td> <td>은행</td> <td>증권사, 자산운용사</td> <td>보험사</td> </tr> <tr> <td>납입방식</td> <td>1만원 이상 자유납</td> <td>1만원 이상 자유납</td> <td>매월 정기납</td> </tr> <tr> <td>운용방식</td> <td>실적배당</td> <td>실적배당</td> <td>금리연동형</td> </tr> <tr> <td>연금형태</td> <td>확정형</td> <td>확정형</td> <td>확정형(생보, 손보) 종신형(생보)</td> </tr> <tr> <td>원금보장</td> <td>보장(2016년 이후 원금보장형 신규가입 제한)</td> <td>비보장</td> <td>보장</td> </tr> <tr> <td>예금자보호</td> <td>보호</td> <td>비보호</td> <td>보호</td> </tr> </tbody> </table>	구 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운용주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납입방식	1만원 이상 자유납	1만원 이상 자유납	매월 정기납	운용방식	실적배당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연금형태	확정형	확정형	확정형(생보, 손보) 종신형(생보)	원금보장	보장(2016년 이후 원금보장형 신규가입 제한)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p>[오탈자 수정]</p> <p>보장(2018년 이후 원금보장형 신규가입 제한)</p>
구 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운용주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납입방식	1만원 이상 자유납	1만원 이상 자유납	매월 정기납																											
운용방식	실적배당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연금형태	확정형	확정형	확정형(생보, 손보) 종신형(생보)																											
원금보장	보장(2016년 이후 원금보장형 신규가입 제한)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162p	<p>부양가족의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여 인출할 수 있다.</p>	<p>[문구 삭제]</p> <p>전체 삭제</p>																												
275p	<p>라. 동시사망의 추정</p> <p>2인 이상의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p>	<p>[오탈자 수정]</p> <p>2인 이상이</p>																												
316p	<p>•가업상속의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추가로 상속공제 받는다.</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가업상속공제액 = Min(가업상속재산가액, 500억원*)</p> <p>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200억,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p>	<p>[오탈자 수정]</p> <p>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p>																												
316p	<p>①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립 포함) 상속의 경우에는 15억원 한도 내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추가로 공제한다.</p>	<p>[오탈자 수정]</p> <p>상속의 경우에는 20억원 한도 내에서</p>																												

325p	<p>[상증법상 합산배제증여재산]</p> <p>①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p> <p>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3)</p>	<p>[오탈자 수정]</p> <p>상증법상 합산배제 증여재산</p>
------	---	---

요약집 모듈2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48p	<p>나. 공시내용</p> <p>(1) 저축성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저축성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만 적립된다. ② 여러 보험회사의 사업비 수준을 확인 후 사업가 저렴한 상품 선택 	<p>[오타자 수정]</p> <p>사업비가</p>
62p	<p>(3) 청약 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p>[오타자 수정]</p> <p>(청약일로부터 30일)</p>
140p	<p>가. 채권발행시장</p> <p>(1) 국채 : 국가에서 발행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등 4가지 종류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쟁입찰 발행 : 국고채권, 재정증권 ② 참가소회방식 : 국민주택채권 ③ 교부방식 : 보상채권 ④ 이표채 :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할인채 : 재정증권 / 복리채 : 국민주택채권 	<p>[문구 수정]</p> <p>④ 이표채 : 국고채권, / 할인채 : 재정증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 복리채 : 국민주택 채권</p> <p>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2022 AFPK 투자설계] 기본서 190~191p에 따라 '할인채'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p>
144p	<p>(4) K-OTC 시장</p> <p>K-OTC 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주권의 매매를 위해 운영되는 시장(금융투자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주식의 유동성 부여, 벤처기업의 육성,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① K-OTC 유가증권이 되기 위한 요건은 매매거래질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국한 ② 매매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방식 : 장외매매방식 • 매매시간 : 09:00~15:30(시간외시장 개설되지 않음) • 매매수량단위 : 1주 •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 대비 ±15% ③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차익에 대해 대기업 발행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면제, 매도자는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기납부액 범위 내 환급가능) 	<p>[문구 수정]</p> <p>K-OTC시장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 대비 ±30%</p>

문제집 모듈1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86p 문22	<p>22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정답 ① 신속채무조정 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이하이다. ② 개인회생의 신청은 총 채무액이 25억(담보부 15억, 무담보부 10억)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③ 개인워크아웃의 운용 주체는 법원이다. ④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미친다.</p> <p>키워드 채무자구제 기본서 p.131</p> <p>22 ④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요구할 수 있다.</p>	<p>[보기 수정] ③ 개인워크아웃의 운용 주체는 신용회복위원회이다.</p> <p>③을 위와같이 수정하여야 정답(④)이 성립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정답이 ③, ④번이 두 개가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 하나이니, 수정된 내용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에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p>
98P 문19	<p>19 다음은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정답 ④</p> <p>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만 (①) 이상의 신청자가 부부기준 (②) 미만의 주택을 (③) 보유한 경우 (④)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반주택연금보다 높은 수준의 월 지급금을 받는다.</p> <p>① 55세 ② 1.5억 ③ 1채 ④ 종신형</p> <p>키워드 주택연금 기본서 p.158</p>	<p>[보기 수정] ④ 우대형</p> <p>4번 보기를 우대형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우대형'에 초점을 둔 문제로 강의 시 '종신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류입니다. 우대형은 65세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p>
233p 문1 정답 및 해설	<p>01 기초연금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정답 ①</p> <p>① 근로소득 월 200만원, 국민연금 월 3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노인단독가구의 월 소득 평가액은 110만원이다. ②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③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④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급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p> <p>키워드 기초연금제도 기본서 p.171~172</p> <p>Answer</p> <p>01 ① 근로소득 월 200만원, 국민연금 월 3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은 101.4만원이다. $[07 \times (200 - 103) + 30] = 97.9$ *주의사항 :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부부 각각 계산하여 합산.</p>	<p>[해설 수정] 월 소득 평가액은 97.9만원이다.</p> <p>101.4만원은 21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값으로, 개정 시 미처 수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97.9만원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p>
132p 문23	<p>23 다음 중 8개 윤리원칙 중 성실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정답 ①</p> <p>① 고객에게 객관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신속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고객의 특별한 동의가 없는 한 고객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전문지식과 능력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문제 수정] 성실성의 원칙 → 객관성의 원칙으로 수정</p> <p>정답 및 해설의 수정은 없습니다.</p>

문제집 모듈2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55p 문13 정답 및 해설</p>	<p>13 보험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small>상</small> <small>하</small></p> <p>①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평가액으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이다. ② 계속사용재나 교환재 모두 채취득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미평가보험은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으로 주로 선박보험, 운송보험 및 적하보험에서 많이 사용된다. ④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그 평가의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p> <p>키워드 보험가액 <small>기본서 p.133</small></p> <p>13 ③ 선박보험, 운송보험, 적하보험은 기평가보험에서 많이 사용된다.</p>	<p>[정답 및 해설 수정] 정답 : ③ → ②, ③</p> <p>기본교재에 따라 문항의 답을 2개로 수정합니다. ②, ③이 적절하지 않으며, ②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p> <p>② 손해보험은 발생 손해를 원상회복 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사용재는 현재가액, 교환재는 제조달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p>
<p>151p 문20</p>	<p>20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small>상</small> <small>하</small></p> <p>①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②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중견, 장내파생상품 포함) ③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계속하여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p> <p>키워드 투자권유 <small>기본서 p.144</small></p> <p>20 ③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권유하는 행위는 제외된다.</p>	<p>[정답 수정] 정답: ③ → ②로 수정</p> <p>정답 및 해설 부분에 정답은 ②로 수정되어야 하며, 해설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p>
<p>298p 문5 정답 수정</p>	<p>5 20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얼마인가? <small>상</small> <small>하</small></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실지 양도가액 : 15억원 • 양도 시 기준시가 : 10억원 • 실지 취득가액 : 모름 • 취득 시 기준시가 : 4억원</p> </div> <p>① 2억원 ② 4억원 ③ 5억원 ④ 6억원</p> <p>키워드 환산취득가액 <small>기본서 p.182</small></p> <p>05 ② 15억원 × 4억원 / 10억원 = 6억원</p>	<p>[정답 수정] 정답: ② → ④로 수정</p> <p>6억원이 정답입니다.</p>

용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그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4번 보기를 답안으로 도출하게 의도하는 과정에서 3번 보기를 매끄럽지 못하게 정리된 부분입니다.

66p
문113

113 보험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 수지상등의 원칙
 나.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다. 대수의 법칙

A. 각각의 구성원의 보험료 부담은 그 위험에 대응하여 공평해야 한다.
 B. 위험집단의 구성원 개인인 입장에서 본 개념이다.
 C. 관찰 또는 관리대상의 수를 증가시킬수록 예측된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는 점점 감소된다.
 D. 보험자 입장에서 위험은 실제손실이 예측된 손실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이것이 성립함으로써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된다.
 E. 보험경영 측면에서 당해 연도 보험경영의 건전성 지표로 사용된다.
 F. 보험사업 경영에 필요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가	나	다
①	A, B, F	D, E, F	C, F
②	A, B, F	E, F	C, D, F
③	E, F	A, B, F	C, D
④	E, F	A, B	C, D, F

113 ③ 기본서 p.42~46

가, E, F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나, A, B, F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다, C, D는 대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수정]

③ E, F / A, B, F / C, D
 → E, F / A, B, F / C, D, F

[해설 수정]

다. C, D, F는 대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183p
문21

제2과목 은퇴설계

21 다음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시기	2010년	2021년	2030년
노령화지수	68.4	104.1	193.0
노년부양비	15.2	19.2	38.6

- ① 2021년 생산 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의 19.2명에 해당하는 부양을 하고 있다.
- ② 2021년에는 총인구의 104.1%가 고령자로 조사된다.
- ③ 2010년에 비하여 2021년에는 노령화 지수의 상승은 고령자의 증가와 더불어 저산의 기초로 설명할 수 있다.
- ④ 2030년부터는 유소년 인구보다 고령인구가 5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21 ② 기본서 p.13

노령화지수 = $\frac{65\text{세 이상 고령자}}{0\text{세} \sim 14\text{세 이하 유소년}}$ 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기 수정]

④ 5배 → 2배

4번 보기 정정 시, 정답 및 해설의 수정은 없습니다.

<p>218p 문116 299p 정답 및 해설</p>	<p>116 손해보험계약조항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으로 손해보험 계약의 요소이다. ② 손해보험은 발생손해를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사용재나 교환재 모두 재취득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그 평가의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④ 미평가보험은 주로 선박보험, 운송보험 및 적하보험에서 많이 사용된다.</p> <p>116 ④ 기본서 p.132 ④ 기평가보험은 주로 선박보험, 운송보험 및 적하보험에서 많이 사용된다.</p>	<p>[정답 및 해설 수정] 정답 : ④ → ②, ④</p> <p>문항오류로 이 문항은 답이 2개가 됩니다. ②, ④가 틀린 내용이며, ②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p> <p>② 손해보험은 발생 손해를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계속 사용재는 현재가액, 교환재는 재조달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p>
<p>246p 9번 정답 및 해설</p>	<p>1회 9번 문제에 대한 해설 수정입니다.</p> <p>09 ① 기본서 p.74~9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수지표 : (고정지출 + 변동지출) / 총소득 = 3.3% • 보장성보험준비지표 : 보장성보험료 / 총소득 = 9% • 금융투자성향지표 : 금융투자 / 저축 및 투자 = 50% • 총부채부담지표 = 총부채 / 총자산 = 43% • 비상예비자금 = [(변동지출 + 고정지출 - 소득세)] / 12 × 3 = 12,250천원 • 현금성자산 + 저축성 자산 = 20,000천원 • 비상예비자금은 부족하지 않다. 	<p>[해설 수정] · 가계수지표 : (고정지출+변동지출)/총소득=83.3%</p> <p>정답은 ①번이며, 해설(가계수지표)에 숫자가 누락되어 정정합니다.</p>